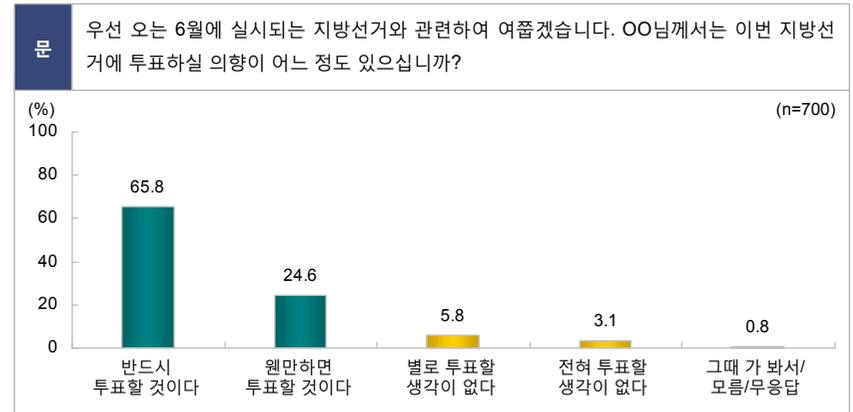


II. 서울

1. 지방선거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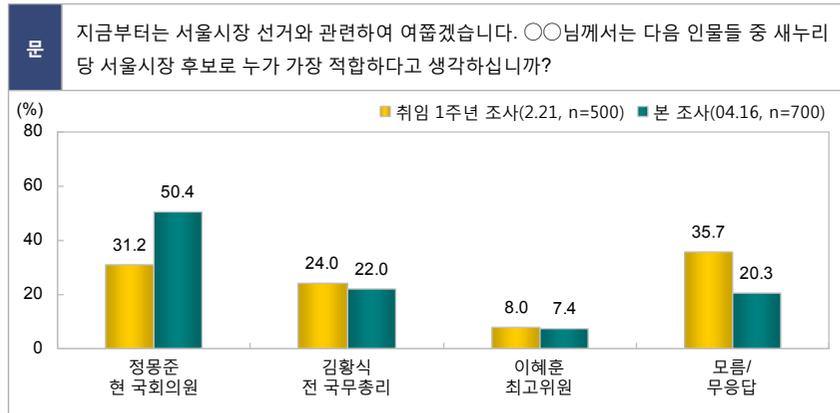
○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65.8%, ‘웬만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소극적 투표의사층은 24.6%로, 투표의사층의 비율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비투표 의사층은 8.9%(별로: 5.8% + 전혀: 3.1%)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서울 지역의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65.8%)이 타 수도권(경기 61.9%, 인천 63.3%) 지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대(72.9%), 60세이상(85.5%)의 고연령층, 자영업(71.3%), 중졸이하(76.3%)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층(73.2%)의 적극적 투표의사 비율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3.6%)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전체		65.8	24.6	8.8	전체		65.8	24.6	8.8
성별	남자	68.3	21.2	9.8	연령별	20대	45.6	41.2	12.1
	여자	63.4	27.9	7.9		30대	61.0	29.4	9.6
직업별	농/임/어업	100.0	0.0	0.0		40대	63.3	26.6	10.1
	자영업	71.3	19.5	7.0		50대	72.9	18.6	7.3
	블투칼라	63.9	23.2	12.9		60세 이상	85.5	7.8	5.1
	화이트칼라	65.4	30.0	4.6		세대별	서북권	69.5	17.2
가정주부	68.3	22.8	8.1	동북권	68.0		22.4	9.3	
학생	47.9	35.6	16.5	서남권	62.8		28.6	7.5	
무직/기타	69.7	11.7	16.5	동남권	63.7		28.3	6.9	
국정	긍정평가층	68.0	23.7	7.4					
운영	부정평가층	62.9	26.4	10.7					

2.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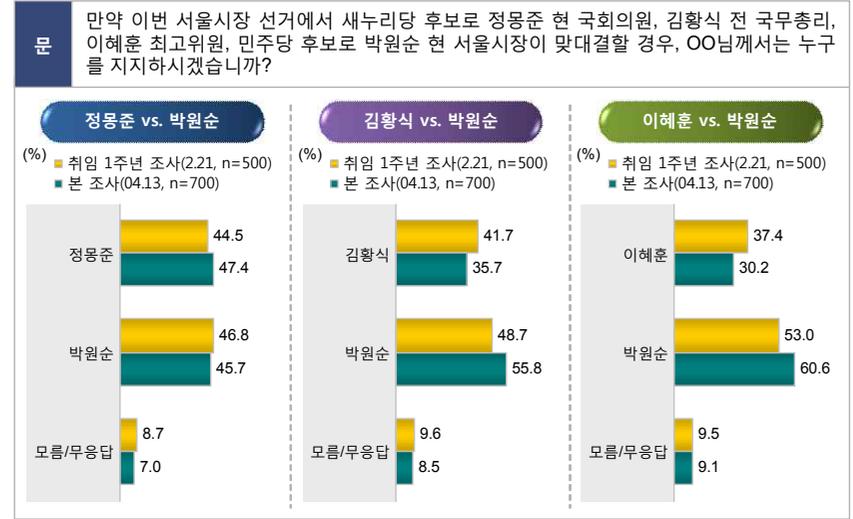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몽준 현 국회의원’(50.4%)을 꼽은 의견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22.0%)를 꼽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지난 취임 1주년(2월 21일)조사에 비해 두 예비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됨(7.2%p → 28.4%p). 한편 ‘이해훈 최고위원’을 꼽은 의견은 7.4%였으며,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의 부동층 비율은 20.3%였음.

■ ‘정몽준 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63.3%), 60세이상(60.5%), 자영업(58.8%), 가정주부(58.6%)에서 더욱 높았음. 한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블루칼라(32.7%)에서, ‘이해훈 최고위원’은 30대(1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정몽준 현 국회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훈 최고위원			정몽준 현 국회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훈 최고위원
전체		50.4	22.0	7.4	전체	50.4	22.0	7.4	
성 별	남자	51.7	20.7	8.2	농/임/어업	100.0	0.0	0.0	
	여자	49.2	23.2	6.6		자영업	58.8	21.3	6.9
연 령	20대	39.3	21.5	6.9	직 업 별	블루칼라	43.5	32.7	5.0
	30대	36.8	26.4	14.8		화이트칼라	42.4	20.4	13.8
	40대	52.5	18.1	7.3		가정주부	58.6	22.0	2.6
	50대	63.3	21.6	7.0		학생	45.7	17.9	4.2
	60세 이상	60.5	22.4	0.6		무직/기타	52.8	22.5	4.4
세 부 지 역	서북권	43.9	23.4	6.7	투표 의향	적극투표층	52.2	22.7	8.2
	동북권	50.1	22.2	5.8		소극투표층	49.8	23.9	6.4
	서남권	52.3	21.1	7.0		비투표층	43.3	13.3	3.3
	동남권	53.5	21.9	10.7					

3. 가상대결 : 박원순 VS 정몽준, 김황식, 이해훈



○ 세 명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간의 가상대결 결과, ‘새누리당 정몽준’(47.4%)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45.7%)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김황식’, ‘새누리당 이해훈’ 후보가 각각 맞붙었을 때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의 두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박원순 55.8% vs 김황식 35.7%, 박원순 60.6% vs 이해훈 30.2%).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 중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의 대결 구도에서는 지난 취임 1주년(2월 21일) 조사(정몽준 44.5% vs 박원순 46.8%)와 마찬가지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접전 양상을 보인 ‘김황식’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의 대결 구도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적극투표 의사층에서는 ‘정몽준’(50.4%) 후보와 ‘박원순’(44.1%) 후보 간의 격차(1.7%p → 6.3%p)가 늘어남. 한편 ‘김황식’, ‘이해훈’ 후보의 경우 ‘박원순’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김황식 vs 박원순 : 20.1%p → 10.6%p, 이해훈 vs 박원순 : 30.4%p → 22.0%p).

한편 지지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부동층은 모든 가상대결에서 10% 이내로 나타남(7.0%~9.1%).

■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3명의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20~40대의 청·중년층, 동북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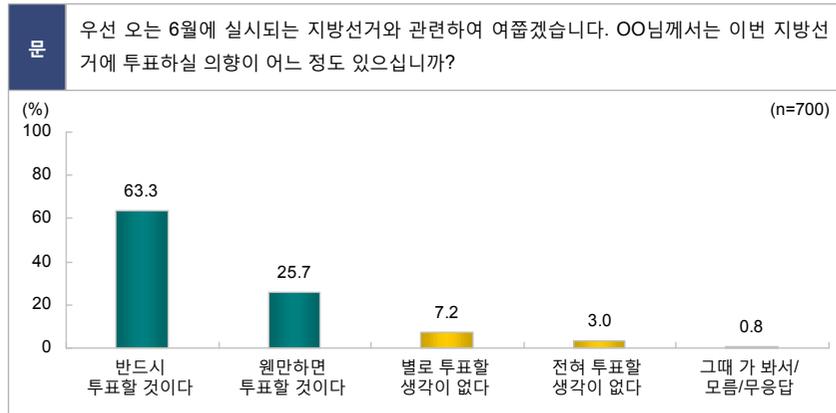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정몽준' 현 국회의원은 50대, 60세 이상의 장·노년층, 동남권, 가정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격차가 적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경우 중졸이하(55.1%)에서, 격차가 가장 컸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농/임/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가상대결 1		가상대결 2		가상대결 3	
		정몽준	박원순	김황식	박원순	이혜훈	박원순
전체		47.4	45.7	35.7	55.8	30.2	60.6
성별	남자	47.2	45.5	34.8	56.3	28.5	63.2
	여자	47.5	45.8	36.6	55.4	31.9	58.2
연령별	20대	25.7	66.0	17.2	75.9	13.7	79.3
	30대	32.8	62.2	21.7	71.9	20.2	74.2
	40대	42.5	47.9	26.0	64.0	20.8	69.4
	50대	61.5	35.2	51.2	43.0	45.6	49.9
	60세 이상	74.3	17.2	62.6	24.3	51.3	30.3
세부지역	서북권	48.1	47.4	34.9	55.1	32.3	58.5
	동북권	41.2	48.5	32.7	57.4	28.5	63.0
	서남권	46.3	46.4	32.4	60.5	28.0	63.5
	동남권	57.8	38.9	45.7	47.1	34.4	54.5
직업별	농/임/어업	100.0	0.0	100.0	0.0	65.3	34.7
	자영업	51.3	43.6	36.6	55.1	28.5	62.9
	블루칼라	32.4	56.6	23.2	62.5	13.3	75.5
	화이트칼라	39.4	53.8	28.0	66.7	24.9	70.9
	가정주부	65.5	26.2	52.9	35.3	45.0	38.7
	학생	19.6	74.6	12.2	82.1	12.3	80.5
	무직/기타	61.8	32.4	48.2	42.5	46.1	44.6
투표의향	적극투표층	50.4	44.1	41.3	51.9	35.4	57.4
	소극투표층	40.4	53.0	24.8	68.4	18.3	71.6
	비투표층	47.4	40.5	26.2	54.8	25.7	58.2

III. 인천

1. 지방선거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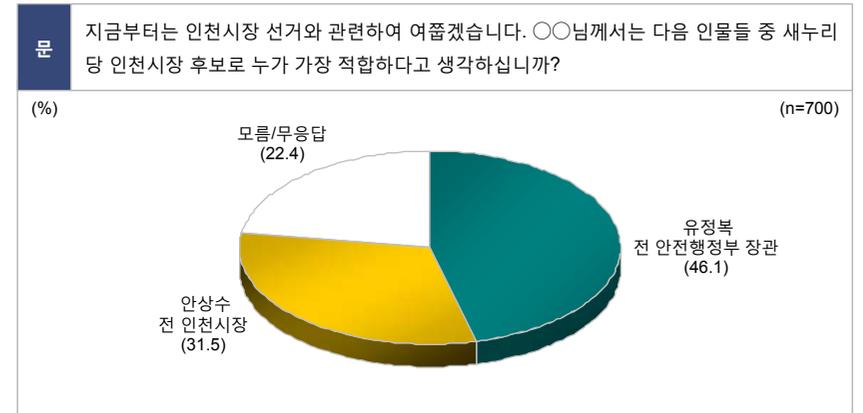
○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63.3%, ‘웬만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소극적 투표의사층은 25.7%로, 투표의사층의 비율이 89.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비투표 의사층은 10.2%(별로: 7.2% + 전혀: 3.0%)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투표할 것이다’는 투표의사층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50대(75.0%), 60세이상(87.2%)의 고연령층, 자영업(74.1%), 중졸이하(75.3%)에서 더욱 높았음.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층(71.3%)의 적극적 투표의사 비율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8%)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전체		63.3	25.7	10.2	전체		63.3	25.7	10.2
성별	남자	60.5	25.1	13.4	연령	20대	44.0	41.1	14.9
	여자	66.2	26.3	6.9		30대	47.2	34.7	17.3
직업	농/임/어업	86.9	13.1	0.0	40대	65.0	27.6	6.9	
	자영업	74.1	14.7	11.1	50대	75.0	16.1	8.3	
직업	블루칼라	49.8	28.5	20.9	60세 이상	87.2	7.7	3.4	
	화이트칼라	57.8	31.0	10.8	세대	중양권	69.7	18.0	11.7
직업	가정주부	75.3	18.6	5.3	남부권	66.0	24.3	9.6	
	학생	41.1	47.0	11.8	동부권	57.1	31.1	10.7	
지역	무직/기타	71.1	19.2	6.0	서부도서권	62.7	27.4	8.5	
	국정	긍정평가층	67.8	22.7	8.7				
운영	부정평가층	53.9	32.1	13.5					

2.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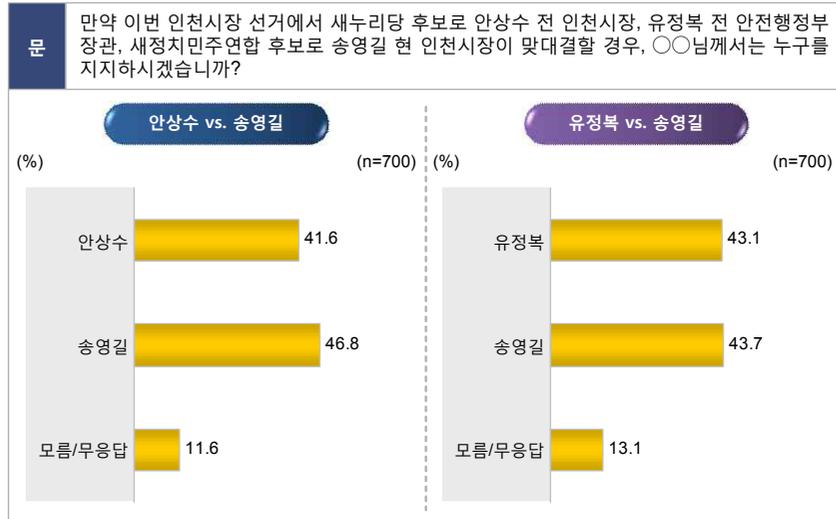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46.1%)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31.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의 부동층 비율은 22.4%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1.1%)은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을 여성(34.9%)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연령별과 인천시 세부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안상수 전 시장은 40대(38.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52.4%), 화이트칼라(54.4%)에서는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을, 농/임/어업(44.3%), 학생(38.5%)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을 꼽는 의견이 높았음.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전체		46.1	31.5	전체		46.1	31.5
성별	남자	51.1	28.1	직업	농/임/어업	40.1	44.3
	여자	41.1	34.9		자영업	52.4	26.6
연령	20대	45.4	31.0	직업	블루칼라	39.8	31.9
	30대	49.1	27.2		화이트칼라	54.4	25.7
연령	40대	43.0	38.6	직업	가정주부	39.7	36.5
	50대	49.6	27.6		학생	40.8	38.5
연령	60세 이상	43.5	32.5	직업	무직/기타	45.8	33.9
	세대	중양권	48.6		33.9	적극투표층	51.4
세대	남부권	45.8	32.9	투표의향	소극투표층	38.9	34.0
	동부권	44.2	28.8		비투표층	32.7	31.3
지역	서부도서권	46.8	31.3				

3. 가상대결 : 송영길 VS 안상수, 유정복



○ 두 명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간의 가상대결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음(안상수 41.6% vs 송영길 46.8%, 유정복 43.1% vs 송영길 43.7%).

적극투표 의사층의 경우 ‘안상수’(48.3%) 후보와 ‘송영길’(43.4%) 후보 간에는 마찬가지로 백중세를 보인 반면, ‘유정복’(49.9%) 후보와 ‘송영길’(41.7%)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8.2%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지지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부동층은 모든 가상대결에서 10% 초반으로 나타남(안상수 vs 송영길 : 11.6%, 유정복 vs 송영길 :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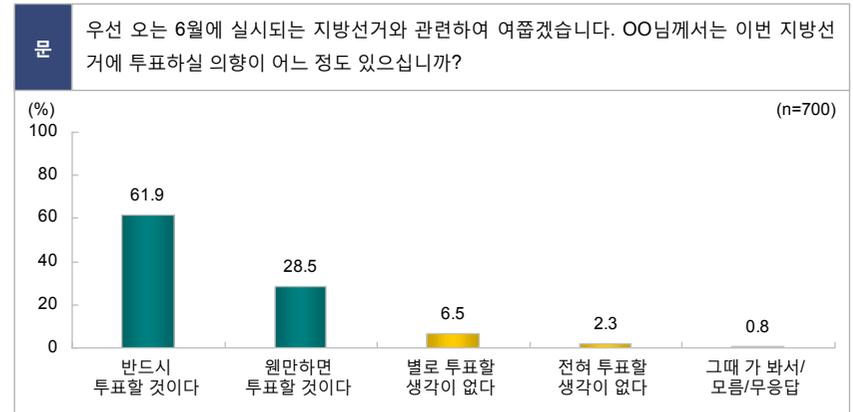
■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2명의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20~40대의 청·중년층, 동부권, 화이트칼라, 학생, 대재이상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소극투표층 및 비투표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냄.

한편 ‘송영길 현 인천시장’과 격차가 가장 적었던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50대, 60세 이상의 장·노년층, 중앙권, 자영업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가정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가상대결 1		가상대결 2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송영길
전체		41.6	46.8	43.1	43.7
성별	남자	39.9	48.8	44.1	43.8
	여자	43.3	44.7	42.1	43.7
연령별	20대	29.0	58.8	33.8	52.8
	30대	21.3	65.4	30.8	51.1
	40대	37.5	55.8	34.4	54.0
	50대	54.9	33.6	53.1	36.2
	60세 이상	68.5	15.9	67.1	21.0
세부지역	중앙권	44.6	46.2	44.8	44.7
	남부권	42.4	45.9	44.3	43.4
	동부권	37.1	49.9	40.1	46.4
	서부도서권	44.5	43.6	44.6	38.9
직업별	농/임/어업	74.9	13.8	73.3	13.8
	자영업	48.1	41.3	48.6	37.3
	블루칼라	25.3	55.5	37.0	45.9
	화이트칼라	34.4	56.9	38.5	49.5
	가정주부	50.7	37.1	45.5	41.0
	학생	35.7	54.9	39.0	53.7
	무직/기타	53.4	33.0	49.7	35.6
투표의향	적극투표층	48.3	43.4	49.9	41.7
	소극투표층	31.6	53.2	35.4	48.1
	비투표층	26.7	53.4	21.5	46.0

IV. 경 기

1. 지방선거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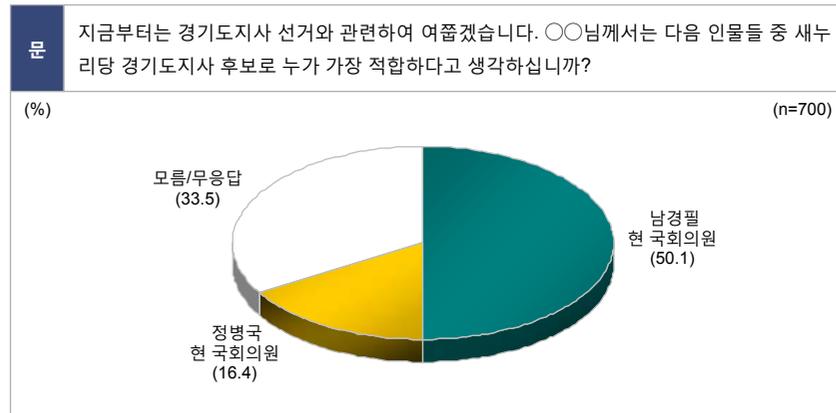
○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61.9%, ‘웬만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소극적 투표의사층은 28.5%로, 투표의사층의 비율이 90.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비투표 의사층은 8.8%(별로: 6.5% + 전혀: 2.3%)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투표할 것이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50대(70.1%), 60세이상(78.5%)의 장·노년층, 자영업(66.1%), 중졸이하(75.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층(65.7%)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4%)의 적극적 투표의사 비율 모두 6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임.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적극투표	소극투표	非투표
전체		61.9	28.5	8.8	전체		61.9	28.5	8.8
성별	남자	65.5	27.0	6.8	연령	20대	47.8	37.5	13.8
	여자	58.2	30.0	10.8		30대	54.4	33.7	10.9
직업	농/임/어업	68.4	23.7	4.1	별	40대	60.0	30.3	9.7
	자영업	66.1	23.7	10.3		50대	70.1	23.4	6.5
직업	블루칼라	58.4	30.9	10.7	60세 이상	78.5	16.3	2.5	
	화이트칼라	61.6	30.6	6.9		세대	남부임해권	65.2	26.1
별	가정주부	62.6	28.1	8.2	동남내륙권		58.9	30.5	8.9
	학생	43.0	39.1	17.9	부	동북부내륙권	59.9	29.8	10.3
국정	무직/기타	75.2	18.3	4.1	지	북부해안권	61.9	26.9	9.8
	긍정평가층	63.0	29.1	7.1	역	중북부내륙권	58.6	40.0	0.0
운영	부정평가층	59.8	29.3	10.3	서울인접도시권	60.5	27.3	11.6	

2.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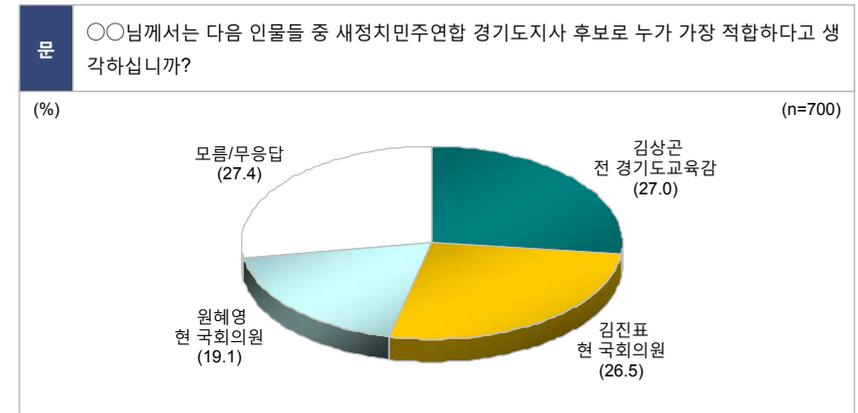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남경필 현 국회의원’(50.1%)을 꼽은 의견이 절반이상이므로 ‘정병국 현 국회의원’(16.4%)을 크게 앞섰음. 한편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의 부동층 비율이 33.5%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남경필 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65.1%), 60세이상(59.9%), 남부임해권(55.6%), 자영업(58.5%), 블루칼라(57.6%)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정병국 현 국회의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20대(27.3%), 동북부 내륙권(36.5%), 학생(3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남경필 현 국회의원	정병국 현 국회의원			남경필 현 국회의원	정병국 현 국회의원
전체		50.1	16.4	전체		50.1	16.4
성 별	남자	54.9	18.3	연 령 별	20대	36.7	27.3
	여자	45.2	14.6		30대	38.6	17.6
직 업 별	농/임/어업	45.4	14.7	40대	50.9	15.8	
	자영업	58.5	17.9	50대	65.1	10.5	
	블루칼라	57.6	11.6	60세 이상	59.9	11.2	
	화이트칼라	49.6	16.3	세 부 지 역	남부임해권	55.6	12.6
	가정주부	46.3	12.5		동남내륙권	43.9	18.5
무직/기타	34.3	36.6	동북부내륙권		38.6	36.5	
투표 의향	적극투표층	55.4	14.7	북부해안권	52.7	21.2	
	소극투표층	44.5	18.7	중북부내륙권	51.8	16.0	
	비투표층	33.8	23.2	서울인접도시권	47.6	11.0	

3.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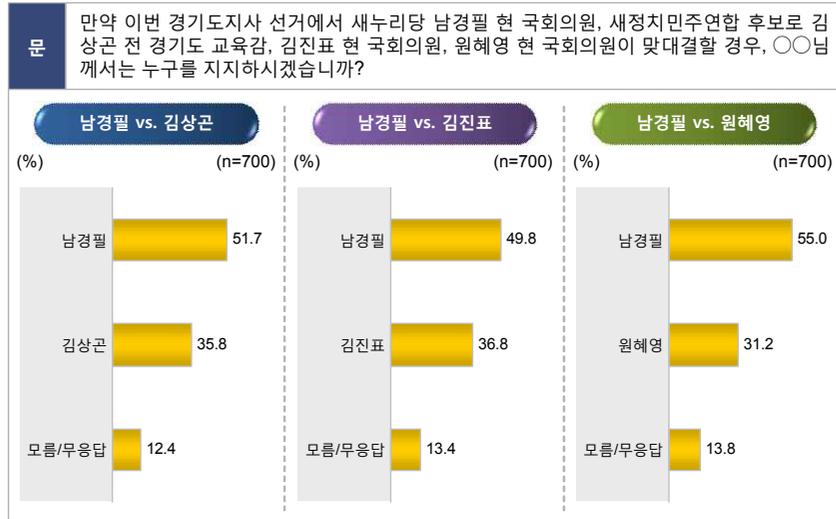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27.0%)과 ‘김진표 현 국회의원’(26.5%)을 꼽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원혜영 현 국회의원’(19.1%)은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의 부동층 비율은 27.4%였음.

▣ 세부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해안권(30.4%)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동북부 내륙권(32.5%)은 ‘김진표 의원’을 서울인접도시권(29.7%)은 ‘원혜영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20대(42.4%), 30대(36.1%), 학생(41.6%), 대재이상(34.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김진표 의원’은 60세이상(39.2%), 농/임/어업(40.9%), 고졸(34.7%)에서, ‘원혜영 의원’은 50대(25.0%), 자영업(2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지지정당별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8.4%)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새누리당 지지층(32.2%)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김진표 현 국회의원	원혜영 현 국회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김진표 현 국회의원	원혜영 현 국회의원
전체		27.0	26.5	19.1	전체		27.0	26.5	19.1
성 별	남자	28.7	29.6	20.4	연 령 별	20대	42.4	19.2	11.3
	여자	25.4	23.4	17.8		30대	36.1	18.4	15.1
직 업 별	농/임/어업	7.8	40.9	10.6	40대	29.9	24.8	24.9	
	자영업	25.7	26.8	27.4	50대	19.1	32.4	25.0	
	블루칼라	31.1	23.1	18.9	60세 이상	5.2	39.2	17.7	
	화이트칼라	30.4	28.1	18.7	세 부 지 역	남부임해권	28.3	28.1	13.7
	가정주부	24.9	24.9	16.7		동남내륙권	22.3	26.3	19.8
학생	41.6	16.0	15.5	동북부내륙권		27.6	32.5	19.9	
투표 의향	무직/기타	11.2	33.5	21.3	북부해안권	30.4	31.5	17.0	
	적극투표층	28.5	29.3	19.2	중북부내륙권	23.9	25.1	13.6	
	소극투표층	26.0	22.0	19.2	서울인접도시권	27.0	19.4	29.7	
	비투표층	20.6	23.7	20.1					

4. 가상대결 1 : 남경필 VS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와 세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간의 가상대결 결과,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세 후보를 모두 10%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남경필 51.7% vs 김상곤 35.8%, 남경필 49.8% vs 김진표 36.8%, 남경필 55.0% vs 원혜영 31.2%).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후보 중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와의 격차(13.0%p)가 가장 적었음. 반면 ‘원혜영’ 후보의 경우 ‘남경필’ 후보와의 격차가 23.8%p로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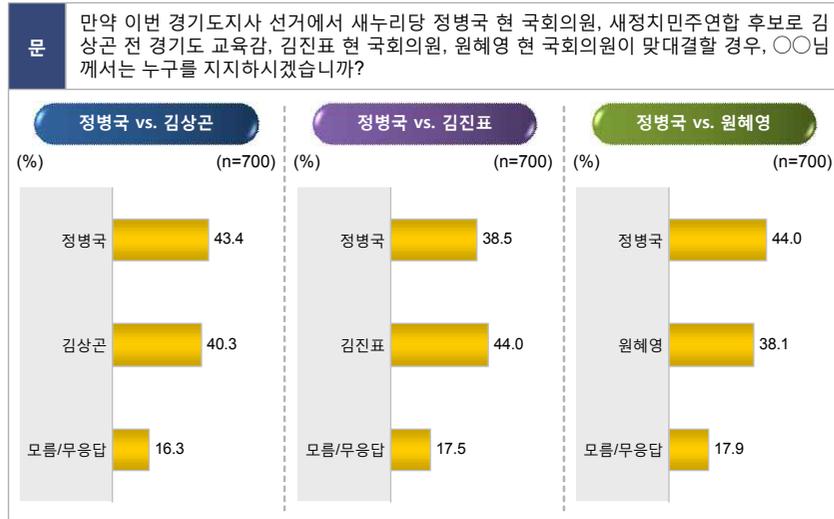
적극투표 의사층의 경우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것으로 조사됨.(남경필 vs 김상곤 : 15.9%p → 19.3%p, 남경필 vs 김진표 : 13.0%p → 18.7%p, 남경필 vs 원혜영 : 23.8%p → 27.1%p)

한편 지지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부동층은 모든 가상대결에서 10% 초반대로 나타남(12.4% ~ 13.8%).

■ ‘남경필 현 국회의원’은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비해 50~60대의 장·노년층, 북부해안권, 중북부 내륙권, 농/임/어업, 자영업에서 특히 높은 지지도를 보임.
한편 ‘남경필 의원’과 격차가 가장 적었던 ‘김진표 의원’은 20대, 학생의 젊은층, 비투표층에서, 다음으로 격차가 적었던 ‘안상수 전 시장’은 가정주부에서, ‘남경필 의원’과 격차가 가장 컸던 ‘원혜영 의원’은 서울인접도시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가상대결 1		가상대결 2		가상대결 3	
		남경필	김상곤	남경필	김진표	남경필	원혜영
전체		51.7	35.8	49.8	36.8	55.0	31.2
성별	남자	55.1	36.2	52.8	37.6	56.5	33.0
	여자	48.3	35.5	46.8	36.0	53.4	29.5
연령별	20대	31.3	50.7	32.1	46.2	49.4	31.6
	30대	38.1	49.8	42.8	42.7	41.2	43.7
	40대	45.8	42.0	43.9	44.3	47.7	38.1
	50대	66.5	24.3	63.3	29.9	67.6	23.3
	60세 이상	80.9	8.3	69.6	17.6	73.2	15.4
세부지역	남부임해권	50.8	40.1	52.2	39.7	58.2	32.3
	동남내륙권	57.7	27.8	55.5	27.0	56.6	24.2
	동북부내륙권	48.1	36.9	44.3	41.0	55.9	28.3
	북부해안권	58.3	29.3	53.4	34.6	59.1	27.2
	중북부내륙권	58.6	31.9	58.9	26.8	66.8	21.8
	서울인접도시권	44.0	39.9	39.1	42.4	42.1	41.0
직업별	농/임/어업	88.3	8.2	69.9	23.4	76.3	20.2
	자영업	59.8	33.2	64.9	28.1	62.2	28.2
	블루칼라	51.9	39.5	52.8	36.7	57.9	34.5
	화이트칼라	44.8	41.3	44.1	41.0	48.6	35.9
	가정주부	51.5	34.9	48.6	36.8	54.5	30.1
	학생	35.0	47.9	33.7	49.3	52.9	32.0
	무직/기타	69.4	16.2	54.8	29.7	58.7	22.8
투표의향	적극투표층	55.4	36.1	54.2	35.5	58.7	31.6
	소극투표층	47.5	37.0	46.4	38.1	51.7	31.0
	비투표층	40.5	31.9	28.6	45.2	38.8	32.2

5. 가상대결 2 : 정병국 VS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 새누리당 정병국 예비후보와 세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간의 가상대결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 정병국’(43.4%)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40.3%)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3.1%p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음. 한편 ‘새누리당 정병국’(38.5%)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44.0%)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김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정병국’(44.0%)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38.1%)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정병국’ 후보가 높았음.
- 적극투표 의사층의 결과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세를 보임.(정병국 45.1% vs 김상곤 41.6%p, 정병국 41.3% vs 김진표 43.3%p, 정병국 45.7% vs 원혜영 39.6%)

한편 지지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부동층은 모든 가상대결에서 10% 중·후반대로 나타남(16.3%~17.9%).

- ‘정병국 현 국회의원’은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비해 50~60대의 장·노년층, 동북부 내륙권, 중북부 내륙권, 자영업, 무직/기타, 중졸이하에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냄.
- ‘정병국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0대, 40대, 학생에서 다음으로 격차가 적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원혜영 의원’ 역시 20대, 30대, 학생의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임.

		가상대결 4		가상대결 5		가상대결 6	
		정병국	김상곤	정병국	김진표	정병국	원혜영
전체		43.4	40.3	38.5	44.0	44.0	38.1
성별	남자	45.1	41.7	40.0	45.9	45.4	40.0
	여자	41.6	39.0	37.1	42.1	42.6	36.2
연령별	20대	26.7	56.2	26.9	53.3	36.4	42.4
	30대	29.1	53.8	32.9	48.1	33.2	48.5
	40대	36.8	49.2	31.8	53.0	39.8	44.9
	50대	59.1	28.0	46.9	39.7	48.4	35.8
	60세 이상	69.3	9.7	57.0	22.2	65.6	14.8
세부지역	남부임해권	42.4	43.4	36.6	48.4	45.1	40.3
	동남내륙권	45.1	32.4	40.4	37.3	43.1	35.3
	동북부내륙권	49.8	33.8	39.9	41.0	52.6	25.3
	북부해안권	47.4	37.4	43.2	43.9	49.9	32.3
	중북부내륙권 서울인접도시권	49.2 37.0	34.3 47.1	45.0 34.5	37.3 45.2	51.1 33.8	33.6 46.5
직업별	농/임/어업	77.0	12.2	62.5	22.9	73.0	16.1
	자영업	49.5	38.8	48.7	41.0	48.6	37.8
	블루칼라	44.6	44.7	41.0	47.8	46.1	41.6
	화이트칼라	38.7	45.4	32.8	47.4	37.3	42.6
	가정주부	44.4	36.6	38.3	41.8	46.4	34.2
	학생	22.9	60.0	25.3	59.6	36.7	46.2
	무직/기타	55.4	19.8	45.1	30.7	50.2	28.8
투표의향	적극투표층	45.1	41.6	41.3	43.3	45.7	39.6
	소극투표층	41.7	41.5	36.0	47.2	44.4	36.8
	비투표층	36.9	29.9	26.2	42.6	29.5	36.0